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

Family Economic Distress,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Controlling Parenting Style, and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충북대학교 아동복지학과

석사 김미정

교수 김영희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Master : Mi Jeong Kim

Professor : Yeong Hee Kim

◀ 목 차 ▶

I. 서론

II. 연구방법

III. 결과 및 해석

IV. 논의 및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effects of family economic distress,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and controlling parenting style on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and to present a program for their reduction. The participants of this study were 344 fathers, whose young children were attending kindergartens located in Cheongju city. Data were analyzed using descriptive statistics, frequenc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and Pearson's productive correlation, *t* and *F*-tests via the SPSS 12.0 program, with the path model analyzed using the AMOS 7.0 program. There were six paths where family economic distress, mediated by paternal depression, marital relationship, controlling parenting style, had effects on the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However, the path where family economic distress had an indirect effect on the behavioral problems in young children via p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relationship appeared to be the most influential. Also, paternal depression appeared to have the most impact on 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주제어(Key Words) : 가정의 경제적 불안(family economic distress), 아버지 우울감(paternal depression), 부부관계(marital relationship), 강압적 양육방식(controlling parenting style), 유아기 문제행동(young children's behavioral problems)

Corresponding Author : Yeong Hee Kim, Department of Child Welfare, Chungbuk National University, 12 Gaesin-dong, Heungdeok-gu, Cheongju-shi, Chungbuk, 361-763, Korea Tel: +82-43-261-3147, Fax: +82-43-260-2793, E-mail: enjoy@chungbuk.ac.kr

* 본 논문은 석사학위논문의 일부임

I. 서론

‘소아기 및 청소년기에 주로 발생하는 행동 및 정서장애’에 대한 심사결정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5년에서 2009년까지 5년 동안 진료인원과 총 진료비가 각각 연평균 13.9%, 26.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건강보험심사평가원, 2010. 4. 7). 더욱이 아동상담센터와 소아정신과에 문제행동으로 의뢰되는 아동의 연령이 과거보다 낮아지고 있고(황미영, 김영희, 2008), 문제행동의 양상도 심각성을 띠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유아기 문제행동은 이후 아동기와 청소년기를 거쳐 더욱 심각한 사회부적응을 초래할 수 있고(남소현, 김영희, 2000; 신정아, 황혜원, 2006), 오랜 시간이 지난 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은 상당한 사회적 비용을 필요로 하며 그 효과성도 미비하여 문제행동에 대한 초기 접근이 강조된다(Campbell, 1994). 따라서 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은 물론 문제행동을 사전에 예방하고 긍정적인 행동발달을 유도하기 위해서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관련 요인들을 탐색하고 요인간의 관련성을 밝히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다.

유아의 문제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유아를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맥락을 고려해야 한다(Bronfenbrenner & Morris, 1998). 유아에게 영향을 미치는 환경 중 가정환경은 최초의 인간관계를 맺는 중요한 사회적 단위이며 강력한 심리적 영향을 미치는 장이다. 특히 유아와 일차적으로 가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부모와 관련된 요인은 유아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부모의 심리적 특성과 부부간의 관계, 부모-자녀간의 관계 맥락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을 살펴보는 것은 중요하다.

선행연구는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큰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심리적 특성으로 우울감을 강조하고 있다(Cummings, Keller, & Davies, 2005; Elgar, Mills, McGrath, Waschbusch, & Brownridge, 2007; Kane & Gaber, 2009; Middleton, Scott, & Renk, 2009; Renk, Roddenberry, Olivers, & Sieger, 2007). 우울감에 관한 선행 연구는 주로 여성의 우울감을 다루었고, 부모의 우울감과 유아의 성장·발달과의 관련 연구 또한 대부분 어머니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남소현, 김영희, 2001; 박영주, 2010; 윤희미, 최문정, 2006; 이상정, 2009; 이정운, 장미경, 2009; Belsky & Barends, 2002; Phares, Fields, Kamboukos, & Lopez, 2005; Trapolini, McMahon, & Ungerer, 2007).

그러나 우울증의 실태에 관한 한국보건개발연구원(2010. 5. 28)의 보고에 의하면 여성의 80.8%, 남성의 63.6%가 최근 1년의 기간 동안 2주 이내로 가벼운 우울감 또는 무기력

감을 경험했다고 밝히고 있어 많은 남성들 또한 우울감의 위험에 놓여 있음을 알 수 있다. 아버지의 우울감은 어머니의 우울감과 마찬가지로 자녀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Wilson & Durbin, 2010). Marchand와 Hock(2003)에 의하면 어머니와 아버지의 우울감은 서로 다르게 자녀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아버지의 우울감이 어머니의 우울감보다 자녀의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더 크게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요인의 탐색에 있어 아버지의 우울감 요인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Rutter(1990)는 부모의 우울감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친다고 할지라도 부모의 우울감과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하는 요인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며, 이러한 매개요인으로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을 언급하였다. 즉 우울감을 가진 부모들은 부부관계에 문제를 갖기 쉽고(Cummings et al., 2005), 부정적이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기 쉬워(Lovejoy, Graczyk, O’Hare, & Neuman, 2000), 자녀의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Elgar et al., 2007; Goodman & Gotlib, 1999).

일반적으로 유아기 같은 자녀양육기는 부모의 양육기술 습득부족과 증대된 가족역할에 대한 준비의 미흡 등으로 부부간에 갈등적인 상호작용으로 부정적인 부부관계가 형성되기 쉽다(Belsky & Rovine, 1990). 이러한 부부관계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Davies & Cummings, 1994; Harrist & Ainslie, 1998), 부모가 비밀관적이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도록 하여 자녀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정미경, 김영희, 2003; Cummings et al., 2005; Ramchandani, et al., 2008). 특히 자녀양육방식에 있어서 아버지의 칭찬과 훈육의 빈도는 어머니보다 많지 않지만 강도가 더 강하기 때문에 유아의 문제행동과 관련성이 매우 높다(Parke, 2002).

한편 유아의 문제행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관련 요인은 가정 외부의 경제적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기 쉽다. 현재 우리사회는 계속되는 경제위기 상황으로 가정의 경제활동이 위축되고, 가족구성원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경제적 문제와 관련된 불안을 많이 경험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는 취업모의 증가로 인해 가정경제를 부부가 함께 부담함으로써 아버지의 가정경제에 대한 부담이 적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가장으로서 가정 경제에 대한 책임은 아버지에게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에 아버지들은 직장의 불안정성, 고용축소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 수입의 감소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경제적 불안으로 인해 정신 건강에 손상을 입게 되며 그 결과 우울감을 호소하는 아버지들이 늘고

있다(Bruce, Takeuchi, & Leaf, 1991; McLoyd, 1990; Wilson & Durbin, 2010). Conger와 Elder(1994)의 연구에 따르면, 수입이 줄거나 실직한 가정들은 아내나 자녀를 돌보아야 하는 경제적 스트레스와 그로 인한 심리적인 불안으로 우울감이나 감정적 폭발 등 불안정한 정서를 나타내며, 어머니 역시 경제적 불안으로 정서적인 변화를 경험할 뿐 아니라 아버지의 정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받는다고 하였다. 국내의 연구에서도 경제적으로 무력해진 가장인 아버지는 아내나 자녀 등 다른 가족원의 행동을 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정적인 행동을 나타내게 되며, 이러한 행동은 부부관계와 부모-자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자녀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석산, 1998).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살펴볼 때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문제행동을 설명하는 중요한 요인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인들 간의 영향력을 통합적으로 한 연구 안에서 살펴본 연구가 부족하여 관련 요인들의 상호관련성을 설명하는데 제한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모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유아기 자녀를 둔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고 <그림 1>의 이론적 경로모형을 제시하였다.

<연구문제>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충청북도 청주시 소재의 6개 어린이집과 6개 유치원에 다니는 만3~6세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자기기입식 질문지 조사방법을 사용하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총 700부를 배부하여 473부(회수율: 67.57%)가 회수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질문에 대한 응답이 불성실한 자료 및 어머니가 작성한 자료 41부, 가정의 경제적 불안 점수가 평균 이하로 나타난 가정의 월평균 소득이 400만원 이상인 자료 88부를 제외하고 최종적으로 344부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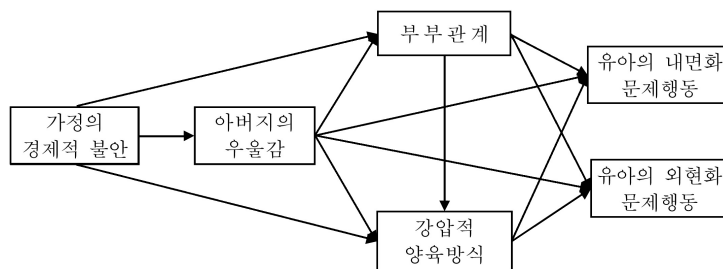
2. 측정도구

1) 가정의 경제적 불안

가정의 경제적 불안은 황덕순(1995)이 개발한 것을 조미영(1999)이 가정의 경제적 위기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수정·보완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본 척도는 물가불안, 소득불안, 고용불안, 재정불안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16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경제적 불안의 수준에 따라 1점부터 5점까지 측정되는 5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가정의 경제적 불안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1이었다.

2) 아버지 우울감

아버지의 우울감은 Beck(1978)의 우울척도(Beck's depression inventory: BDI)를 이영호와 송종용(1991)이 번안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DI는 우울의 정서적, 인지적, 동기적, 그리고 생리적 증상을 포함하는 척도로서 총 21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우울의 정도에 따라 0점부터 3점까지 측정되는 4점 Likert 척도이며, 총점은 0점에서 63점 사이에 분포한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우울감을 경험하는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87이었다.



<그림 1>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이론적 경로모형

3) 부부관계

아버지의 부부관계는 Locke와 Wallace(1959)가 개발한 Marital Adjustment Test(MAT)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부부 행복감 및 부부관계에 대한 일치도와 만족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총 1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부 행복감은 극심한 불행에서 최고의 행복까지로 구성된 평정척도로 구성되어 있고, 1번 ~ 8번 문항은 6점, 9번과 13문항은 3점 척도, 10번과 12번, 14번은 4점 척도, 11번 문항은 2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아버지의 부부관계는 척도의 수준에 차이가 있어 각 문항에 대한 가중치를 계산한 후 평균을 산출하여 측정하였다. Cronbach's α 는 .71이었다.

4) 강압적 양육방식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Calzada와 Eyberg(2002)가 사용한 Parenting Style and Dimension(PSD)을 이동희(2003)의 연구에서 번안·수정한 척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다. PSD는 논리적 설명 결여, 강압적 체벌, 방임을 측정하는 문항으로 총 22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문항은 '거의 그렇지 않다(1점) 에서 '항상 그렇다(4점) 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다. 본 연구에서는 요인분석을 실시한 결과 애정적 양육방식과 강압적 양육방식의 2개 요인이 산출되었으나, 우울감이 높은 아버지들은 양육기술이 부족하거나 강압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게 된다는 선행연구의 결과(Cummings et al., 2005)에 근거하여 강압적 양육방식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아버지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Cronbach's α 는 .79이었다.

5) 유아의 문제행동

유아의 문제행동은 Reid, Hong과 Wade(2009)의 문제행동 척도를 번안·수정하여 전문가의 검토를 거친 후 측정에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문제행동을 정서장애-불안, 분리불안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과잉행동-부주의, 신체적 공격-적대

〈표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변인	구분	빈도(%)	변인	구분	빈도(%)			
유아 성별	남아	190(55.2)	아버지 직업	생산/기술/노무직	87(25.3)			
	여아	154(44.8)		상업/서비스직	108(31.4)			
	계	344(100.0)		행정/사무직	128(37.2)			
유아 연령	계	344(100.0)		전문직	21(6.1)			
				무직	0(0)			
				배우자 직업	전문직	13(3.8)		
			행정/사무직		36(10.5)			
			상업/서비스직		48(13.9)			
생산/기술/노무직	15(4.4)							
전업주부	232(67.4)							
아버지 연령	계	344(100.0)	가족 형태	핵가족	315(91.6)			
				대가족	29(8.4)			
			배우자 연령	계	344(100.0)	월평균 가구 소득	200만원 미만	68(19.8)
							200~300만원	153(44.5)
							300만원 이상	123(35.7)
계	344(100.0)							
아버지 학력	계	344(100.0)	아버지 종교	불교	82(23.8)			
				기독교	42(12.2)			
				천주교	20(5.9)			
				무교/기타	200(58.1)			
배우자 학력	계	344(100.0)	배우자 종교	불교	90(26.2)			
				기독교	50(14.5)			
				천주교	29(8.4)			
				무교/기타	175(50.9)			
계	344(100.0)	계	344(100.0)					

감의 외현화 문제행동으로 구분하고 있다.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1점)’에서 ‘항상 그렇다(4점)’까지의 4점 Likert 척도이며 총 25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문항들의 총점을 사용하였고, 점수가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의 Cronbach’s α 는 .80, 외현화 문제행동의 Cronbach’s α 는 .88이었다.

3.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는 SPSS 12.0과 AMOS 7.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으로는 조사자의 일반적 배경을 분석하기 위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하였고, 질문지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위해 요인분석과 Cronbach’s α 의 내적합치도 계수를 산출하였다. 각 하위변인들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적률 상관계수를 사용하였으며, 제안된 이론적 모델을 검증하기 위해서 AMOS 7.0을 이용하여 경로분석을 실시하였다.

III. 연구결과 및 해석

1.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

조사대상자의 일반적 배경은 <표 1>과 같다.

2.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자녀 양육 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경로모델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의 각 요인들의 상관관계, 평균, 표준편차는 <표 2>에 나타난 바와 같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은 가정의 경제적 불안($r = .19, p < .01$), 아버지의 우울감($r = .39, p < .01$), 강압적 양육방식($r = .35,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부부관계($r = -.35, p < .01$)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역시 가정의 경제적 불안($r = .23, p < .01$), 아버지의 우울감($r = .40, p < .01$), 강압적 양육방식($r = .42, p < .01$)과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부부관계($r = -.34, p < .01$)와는 부적상관을 보였다. 이것은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강압적 양육방식의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고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높을수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낮아지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각 요인들의 분산팽창 계수인 VIF 값을 살펴보면 1.14에서 1.60으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1>의 모델을 기초로 이론적 모델의 적합도 검증은

<표 2>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 유아의 문제행동 간의 상관관계

	아버지			문제행동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	내면화	외현화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35**					
부부관계	-.27**	-.53**				
강압적 양육방식	.19**	.29**	-.28**			
문제행동	내면화	.19**	.39**	-.35**	.35**	
	외현화	.23**	.40**	-.34**	.42**	.66**
평균	2.97	.41	6.13	1.69	1.55	1.63
표준편차	.48	.31	1.66	.41	.39	.41

** $p < .01$

실시한 결과는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다. $\chi^2 = 1.34(p) .05$, $df = 2$, $TLI = .99$, $GFI = .99$, $AGFI = .98$, $NFI = .99$, $CFI = .99$ 로 모두 .90 이상이며 $RMSEA = .01$ 으로 .05보다 작아 자료가 모델을 잘 적합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3> 경로모델의 적합도 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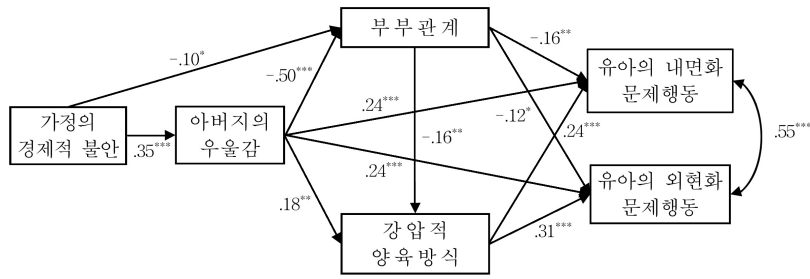
($N = 344$)

	χ^2	df	TLI	GFI	$AGFI$	NFI	CFI	$RMSEA$
적합도	1.34	2	.99	.99	.98	.99	.99	.01

<그림 1>의 이론적 모델을 통하여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모델을 분석한 결과는 <그림 2>에 나타난 바와 같고, 모델의 직·간접효과와 총효과는 <표 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은 아버지의 우울감에 .35, 부부관계에 -.10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17, 외현화 문제행동에 .18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감이 높고,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이를 통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아버지의 우울감은 부부관계에 -.50, 강압적 양육방식에 .18,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각각 .24의 직접효과를 미치고, 부부관계를 통해 강압적 양육방식에 .08, 부부



* p < .05, ** p < .01, *** p < .001
 모든 계수는 표준화된 계수임.
 $\chi^2 = 1.34(p > .05, df = 2)$

〈그림 2〉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경로모델

관계와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각각 .14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우울감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며,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졌으며, 부부관계와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부관계는 강압적 양육방식에 -.16,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16, 외현화 문제행동에 -.12의 직접효과를 미치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04, 외현화 문제행동에 -.05의 간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을수록 강압적 양육방식을 많이 사용하여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높이며,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을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강압적 양육방식은 내면화 문제행동에 .24, 외현화 문제행동에 .31의 직접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내면화 문제행동에 비해 상대적으로 외현화 문제행동 수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가장 큰 변인이 어떤 것인지 총효과를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우울감이 부부관계와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총효과 .3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 또한 아버지의 우울감이 부부관계와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력(총효과 .38)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의 우울감이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가장 큰 효과를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이로부터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경로를 효과분해 하였다. 첫째로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두 가지로 나타났다. [경로1]은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져(-.10) 유아의 내면화(-.16)와 외현화 문제행동(-.12)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 -.26(-.10×-.16), 외현화 문제행동 -.22(-.10×-.12)로 나타났다. [경로2]에서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지고(-.10), 이를 통해 아버지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여(-.16) 유아의 내면화(.24)와 외현화 문제행동(.31)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 -.06(-.10×-.16×.24),

〈표 4〉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과 유아의 문제행동에 관련된 변인의 직·간접효과

독립변인	종속변인	직접효과	간접효과	총효과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35*	·	.35*
	부부관계	-.10*	-.18**	-.27**
	강압적 양육방식	-.09	.11**	.19**
	내면화 문제행동	·	.17**	.17**
	외현화 문제행동	·	.18**	.18**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50**	·	-.50**
	강압적 양육방식	.18*	.08*	.25**
	내면화 문제행동	.24**	.14**	.38*
부부관계	외현화 문제행동	.24*	.14**	.38*
	강압적 양육방식	-.16*	·	-.16*
	내면화 문제행동	-.16**	-.04*	-.20**
강압적 양육방식	외현화 문제행동	-.12*	-.05*	-.17*
	내면화 문제행동	.24**	·	.24**
	외현화 문제행동	.31*	·	.31*

*p < .05, **p < .01

외현화 문제행동 $-.08(-.10 \times -.16 \times .31)$ 로 나타났다.

둘째로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아버지의 우울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네 가지로 나타났다. [경로3]은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져서(.35) 유아의 내면화(.24)와 외현화 문제행동(.24)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08(.35 \times .24)$ 로 나타났다. [경로4]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지고(.35), 아버지의 우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져서(-.50) 유아의 내면화(-.16)와 외현화 문제행동(-.12)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 $-.31(.35 \times -.50 \times -.16)$, 외현화 문제행동 $-.27(.35 \times -.50 \times -.12)$ 로 나타났다. [경로5]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지고(.35), 아버지의 우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강압적 양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여(.18) 유아의 내면화(.24)와 외현화 문제행동(.31)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 $.01(.35 \times .18 \times .24)$, 외현화 문제행동 $.01(.35 \times .18 \times .31)$ 로 나타났다. [경로6]은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가 경험하는 우울감의 수준이 높아지고(.35), 아버지의 우울감의 수준이 높을수록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지고(-.50), 이러한 부부관계는 아버지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하여(-.16) 유아의 내면화(.24)와 외현화 문제행동(.31) 수준이 높아졌다. 이 경로를 통해 설명되는 효과는 내면화 문제행동 $-.07(.35 \times -.50 \times -.16 \times .24)$, 외현화 문제행동 $-.09(.35 \times -.50 \times -.16 \times .31)$ 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총 여섯 가지로 나타났으며,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경로는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아버지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쳐 부부관계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였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문헌고찰을 통해 세워진 이론적 모델을 통해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부

모의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과 유아의 문제행동을 감소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해보고, 유아기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부모교육 프로그램이나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은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부관계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강압적 양육방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높을수록 아버지의 우울감의 수준이 높고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져서 강압적 양육방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부모의 우울감, 부정적인 부부관계와 정적 상관이 있다는 연구결과(McLoyd, 1998)와 일치하는 것으로 아버지가 지각하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은 아버지의 분노, 좌절감, 통제감 등을 야기시켜 아버지의 우울감 수준을 높이고(Bruce et al., 1991; McLoyd, 1990), 아버지가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다는 데 대한 죄책감, 위축감, 불안감을 갖게 되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불안정한 가계 소득으로 생활을 해나가기 위해 가계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배우자와 부정적인 상호작용을 하게 되어(이경옥, 2000) 부부관계를 긍정적으로 지각하는 수준이 낮아지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부관계는 강압적 양육방식에도 영향을 미쳐 아버지는 강압적 양육방식을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자녀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둘째, 아버지의 우울감은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으로 유의미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한 부부관계와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우울감은 다른 요인보다 부부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대한 직·간접적인 영향력의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감을 가진 부모들은 부부관계에 문제를 갖기 쉽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하기 쉬우며,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나타내는 자녀들에게 고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Smith & Jenkins, 1991)와 일치한다. 또한 우울감의 수준이 높은 아버지의 자녀는 우울감의 수준이 낮은 아버지의 자녀보다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더 경험하기 쉽다는 연구결과(Kane & Garber, 2004; Ramchandani, Stein, Evans, & O'Connor, 2005), 부정적인 부부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매개한다는 연구결과(Cummings & Davies, 2002; Cummings et al., 2005)와도 맥을 같이한다.

셋째, 부부관계는 강압적 양육방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강압적 양육방식을 통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간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부관계에 대한 만족도가 강압적 양육방식에 유의미한 부적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리(2009)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일치하고,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우울감이나 불안, 위축, 사회적 고립 같은 아동의 내면화 문제행동과 비행이나 반사회적 행동, 불복종, 공격성, 행동문제와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을 증가시킨다는 연구결과(Davies & Cummings, 1994)와 일치한다. 또한 부정적인 부부관계는 부모의 강압적 양육방식을 매개로 하여 우울(Johnston, Gonzalez, & Campbell, 1987), 불안, 위축(Holden & Ritchie, 1991)과 같은 내면화 문제행동과 공격성(Holden & Ritchie, 1991; Smith & Jenkins, 1991), 비행, 반사회적 행동(Peterson & Zill, 1986; Emery & O'Leary, 1984)과 같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는 부부관계가 긍정적인 경우 아버지는 자녀를 양육할 때 생기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를 합리적인 의사사통으로 적절하게 합의할 가능성이 높아서 애정적인 부모-자녀관계에 영향을 미치고, 부부관계가 부정적일 경우에는 배우자와의 의견 차이를 합리적으로 해결하지 못하여 부모-자녀관계에도 부정적이고 강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부부관계가 부정적인 경우 유아는 가정에서 분노 상황을 자주 관찰하게 되고, 이는 유아에게 직접적으로 부정적인 정서를 불러일으켜 유아가 문제행동을 나타낼 수 있음을 지지한다. 이와 같이 부부가 긍정적인 부부관계를 지속하지 못하는 것은 부부 개인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자녀의 현재의 문제행동과 더 나아가 자녀의 이후 성장·발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본 연구결과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유아기 자녀를 둔 부부가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부부관계를 유지하고 자녀의 성장과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부부 간 스스로의 노력은 물론이고 부모교육 현장, 부부교육 현장,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상담현장에서 부모역할 증진 및 부부관계 증진을 위한 접근과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넷째,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은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 보다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이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자녀양육방식이 애정적이지 않고 거부적이며 통제적인 경우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을 야

기한다는 연구결과(강덕귀, 2002; 이찬숙,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한다. 부모가 자녀에게 무관심하고, 자녀와의 상호작용을 거부하게 되면 자녀에게 정신병리나品行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반면 따뜻하고 지속적인 부모의 보호적인 참여는 자녀의 건강한 자아발달의 형성을 도모하여 사회에 잘 적응하게 해준다는 연구결과(원유미, 2000; 임진영, 장재숙, 2003)는 본 연구의 결과를 지지하고 있다. 아버지가 강압적 양육방식을 사용할수록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므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프로그램은 긍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보호요인으로 작용하는 것과 부정적 부모-자녀관계가 자녀의 문제행동에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을 고려하여 보호요인을 강화하고 위험요인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주어야 할 것이다. 특히 아버지가 자녀와 정서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자녀를 애정적으로 대하는 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다섯째,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칠 것이라는 본 연구의 이론적 모델과는 달리 가정의 경제적 불안은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에만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고 강압적 양육방식에는 직접적인 영향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부모의 우울감과 부정적 부부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부모의 우울감과 부정적 부부관계를 통해 강압적 양육방식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쳐서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의 수준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Robila and Krishnakumar(2006)의 연구결과와 일치한다. 그러나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아버지의 비일관적이고 강압적 양육방식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McLoyd, 1990)와는 일치하지 않는 결과이다.

여섯째,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을 부분 매개로하여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이르는 경로는 총 여섯 가지가 나타났다. 그 중 가장 효과가 큰 경로는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 가정의 경제적 불안이 아버지의 우울감에 영향을 미쳐서 부부관계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으로 가는 경로로 나타났다. 이는 가정에서 가족부양자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아버지들은 직장의 불안정성, 고용축소로 인한 실직자의 증가, 수입의 감소 등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으로 인해 우울감을 경험하게 되고(Elder, Liker, & Cross, 1984), 우울감과 관련한 정서를 배우자에게 표출하게 되면서 부정적인 부부관계를 경험하며, 결과적으로 자녀들에게 직·간접적인 문제행동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이 된다(Conger & Elder, 1994; McLoyd, Jayaratne, Ceballo, & Borquez, 1994)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의 경

제적 불안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감소하기 위해서는 아버지의 우울감과 부부관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러한 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상호작용을 최소화하고 긍정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을 예방하고 성장·발달을 증진하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일곱째,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력을 미치는 아버지 관련 요인들의 상대적인 영향력을 살펴본 결과 아버지의 우울감과 강압적 양육방식이 큰 영향력을 미치는 요인으로 나타났다. 유아의 내면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의 우울감과 강압적 양육방식이 같은 크기로 나타났고, 유아의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력은 아버지의 강압적 양육방식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미치는 직·간접적인 영향력을 함께 살펴보면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우울감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을 알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설정한 요인 중 결과적으로 아버지의 우울감이 유아의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에 직·간접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가장 크게 미쳤다. 이러한 결과는 우울한 부모의 자녀가 더 많은 우울, 불안, 공격성의 징후를 보인다고 밝힌 연구결과(Goodman, 2007; Ramchandani, et al., 2008)와 부분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에 있어서 가정환경 요인 중 아버지의 우울감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하고 아버지를 위한 정서적 지지체계의 마련 등 우울감 감소에 대한 개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선행연구에서는 어머니 관련 요인 중 어머니-자녀관계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Belsky, 1984), 어머니와 아버지가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해준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아의 문제행동의 개입과 증재에 있어서 어머니와 아버지의 영향력의 차이를 고려하는 것이 필요함을 시사해주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의 결과와 논의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하여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이론적 모델을 검증해 본 것으로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아버지와 어머니의 영향력을 비교해보지 못했다. 후속 연구에서는 유아의 문제행동에 보다 더 체계적인 개입을 하기 위해 부모를 쌍으로 하는 연구를 통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어머니와 아버지 각각의 영향력을 비교하는 것도 의미 있을 것이다. 둘째, 본 연구는 유아기 자녀를 둔 아버지만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문제행동은 아동의 연령과 발달경로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유아기, 아동기, 청소년기 자녀를 둔 아버지를 대상으로 한 비교연구를 통해 발달 단계에 따라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자녀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아동의 발달단계에 따른 아동의 문제행동에 대한 개입 및 증재의 방향을 제시해줄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아버지가 유아기 자녀의 문제행동을 측정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아버지가 자녀의 문제행동을 정확하게 측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객관적이고 정확한 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어머니와 아버지를 포함하여 유아교육기관의 교사가 유아의 문제행동을 평정한 결과를 포함시키는 방법 등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으로 밝히고 있지만, 그동안 연구가 부족하게 이루어졌던 아버지 관련요인으로 가정의 경제적 불안, 아버지의 우울감, 부부관계 및 강압적 양육방식이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한 모델 안에서 통합적으로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를 통해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아버지 관련 요인에 대한 이해의 기초 및 유아의 문제행동에 대한 예방 및 개입프로그램을 마련하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 참고문헌

- 강덕귀(2002). 부부관계 및 부모-자녀관계와 유아의 문제행동.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건강보험심사평가원(2010. 4. 7). '여성우울증, 남성보다 2배 많아' 보도자료.
- 김석산(1998). **한국의 경제위기와 아동 : 그들의 생존·보호·발달을 지키기 위한 행동 방안의 모색 - 경제위기 속의 가족, 현상과 대응**. 서울: 한국아동단체협의회.
- 남소현, 김영희(2000). 어머니의 심리적 환경요인과 아동의 외면적 내면적 적응행동: 성별 중심. **생활과학연구논총**, 3, 17-28.
- 박영주(2010). 어머니의 임신 중 스트레스와 산후 우울 및 현재 우울이 유아의 부적응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아, 황혜원(2006). 초기 청소년의 스트레스와 심리사회적 적응에 대한 생태체계적 보호요인의 영향 연구. **청소년학연구**, 13(5), 123-154.
- 원유미(2000). 부모의 양육태도, 결혼만족도, 의사결정유형과 자녀 특성과의 관계. 원광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윤혜미, 최문정(2006). 어머니 우울과 부부갈등이 양육을 매개로 하여 유아의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한국영유아보육학**, 12(1), 21-44.
- 이경옥(2000). 가계의 경제위기대처행동에 대한 체계적 접근. 부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이동희(2003). 유아의 기질, 부모 간 갈등 및 어머니의 훈육방식이 유아의 공격성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상정(2009). 어머니의 우울, 부부갈등 및 유아의 정서가 문제행동에 미치는 영향. 충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영호, 송중용(1991). BDI, SDS, MMPI-D 척도의 신뢰도와 타당도에 대한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10(1), 98-113.
- 이유리(2009). 아버지의 원가족 분위기가 부-자간 친밀감에 미치는 영향: 아버지의 결혼만족도 및 삶의 만족도와 청소년이 지각한 아버지의 양육행동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정윤, 장미경(2009). 어머니의 우울과 양육행동의 관계: 자녀양육관련 비합리적 사고의 매개효과. **인지행동치료**, 9(2), 1-16.
- 이찬숙(2008). 유아의 문제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유아 개인, 가정환경 및 지역사회 변인 분석.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임진영, 장재숙(2003). 어머니의 양육태도와 아동의 자아개념이 아동의 대인관계에 주는 영향. **초등교육연구**, 16(1), 379-399.
- 정미경, 김영희(2003). 어머니의 아동기 양육경험, 우울, 부부갈등 및 양육행동과 학령기 아동의 부적응. **대한가정학회지**, 41(8), 123-137.
- 조미영(1999). 가정의 경제적 불안, 부모의 우울, 아동의 사회적 지지 지각이 아동의 행동문제에 미치는 영향.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한국보건 의료연구원(2010. 5. 28). '한국보건 의료연구원, 경증 우울증 및 아심상 우울증의 실태와 우울증 자기관리법의 적절성 평가 결과 발표' 보도자료.
- 황덕순(1995). 도시가계의 경제적 불안과 대처행동. 경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황미영, 김영희(2008). 발달, 행동, 정서장애 아동이 놀이표현에서 보이는 관계요소의 임상적 프로파일. **한국아동학회지**, 29(5), 197-214.
- Beck, A. T.(1978). *The depression inventory*. Philadelphia: Center for Cognitive Therapy.
- Belsky, J.(1984). The determinants of parenting: A process model. *Child Development*, 55, 83-96.
- Belsky, J., & Barends, N.(2002). Parenting and personality. In M. H. Bornstein(2nd Ed.), *Handbook of parenting: Being and becoming a parent*(pp. 415-438). Mahwah, NJ: Erlbaum.
- Belsky, J., & Rovine, M.(1990). Patterns of marital change across the transition to parenthood: Pregnancy to three years postpartu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2, 5-19.
- Bronfenbrenner, U., & Morris, P.(1998). The ecology of developmental processes. In R. M. Lerner(Ed.) & W. Damon(Series Ed.), *Handbook of child psychology*(Vol.1): *Theoretical models of human development*(5th Ed.). New York: Wiley.
- Bruce, M. L., Takeuchi, D. T., & Leaf, P. J.(1991). Poverty and psychiatric status: Longitudinal evidence from the new haven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study. *Archives of General Psychiatry*, 48, 470-474.
- Calzada, E. J., & Eyberg, S. M.(2002). Self-reported parenting practices in dominican and Puerto Rican mothers of young children.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31(3), 354-363.
- Campbell, S. B.(1994). Hard-to-manage preschool boys: Externalizing behavior, social competence, and family context at two-year followup.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22(2), 147-166.
- Conger, R. D., & Elder, G. H.(1994). *Families in troubled times: adapting to change in rural America*. New York: Aldine de Gruyter.
- Cummings, E. M., & Davies, P. T.(2002). Effects of marital conflict on children: Recent advances and emerging themes in process-oriented research.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3(1), 31-63.
- Cummings, E. M., Keller, P. S., & Davies, P. T.(2005). Towards a family process model of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Exploring multiple relations with child and family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46, 479-489.
- Davies, P. T., & Cummings, E. M.(1994). Marital conflict and child adjustment: An emotional

- security hypothesis. *Psychological Bulletin*, 116, 387-411.
- Elder, G. H. Jr., Liker, J. K., & Cross, C.(1984). Parent-child behavior in the great depression; Life course and intergenerational influence. In P. B. Baltes, & O. G. Brim(Eds.), *Life-span development and behavior*(pp. 109-158). New York: Academic Press.
- Elgar, F. J., Mills, R. S. L., McGrath, P. J., Waschbusch, D. A., & Brownridge, D. A.(2007). Maternal and paternal depressive symptoms and child maladjustment: The mediating role of parental behavior.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35, 943-955.
- Emery, R. E., & O' Leary, K. D.(1984).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in a nonclinic sampl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2(3), 411-420.
- Goodman, S. H.(2007). Depression in mothers. *Annual Review of Clinical Psychology*, 3, 107-135.
- Goodman, S. H., & Gotlib, I. H.(1999). Risk for psychopathology in the children of depressed mothers: A developmental model for understanding mechanisms of transmission mothers. *A Psychological Review*, 106, 458-490.
- Harrist, W., & Ainslie, C.(1998). Marital discord and child behavior problems: Parent-child relationship quality and child interpersonal awareness as mediators. *Journal of Family Issues*, 19(2), 140-163.
- Holden, G. W., & Ritchie, K. L.(1991). Marital disharmony and children's behavior problems: Aspects of a poor marriage that affect children adversely. *Journal of Child Psychology and Psychiatry*, 32(5), 793-810.
- Johnston, J. R., Gonzàlez, R., & Campbell, L. E. G.(1987). Ongoing postdivorce conflict and child disturbance.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5(4), 493-509.
- Kane, P., & Garber, J.(2004). The relations among depression in fathers, children's psychopathology, and father-child conflict: A meta-analysis. *Clinical Psychology Review*, 24, 339-360.
- Locke, H. J., & Wallace, K. M.(1959). Short marital adjustment and prediction tests: Their reliability and validity. *Marriage and Family Living*, 21, 251-255.
- Lovejoy, M. C., Graczyk, P. A., O'Hare, E., & Neuman, G.(2000). Maternal depression and parenting behavior: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20, 561-592.
- Marchand, J. F., & Hock, E.(2003). Mothers' and fathers' depressive symptoms and conflict-resolution strategies in the marriage and children's externalizing and internalizing behaviors. *The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64, 227-239.
- McLoyd, V. C.(1990). The impact of economic hardship on black families and children: Psychological distress, parenting and socio-emotional development. *Child Development*, 61(2), 311-346.
- McLoyd, V. C.(1998). Socioeconomic disadvantage and child development. *American Psychologist*, 53(2), 185-204.
- McLoyd, V. C., Jayaratne, T. E., Ceballo, R., & Borquez, J.(1994). Unemployment and work interruption among African American single mothers: Effects on parenting and adolescent socioemotional functioning. *Child Development*, 65, 562-589.
- Middleton, M., Scott, S. L., & Renk, K.(2009). Parental depression, parenting behaviors, and behaviour problems in young children. *Infant & Child Development*, 18(4), 323-336.
- Parke, R. D.(2002). Fathers and families. In M. H. Bornstein(Ed.), *Handbook of parenting: Being and becoming a parent*(pp.27-73). Mahwah, NJ: Erlbaum.
- Peterson, J. L., & Zill, N.(1986). Marital disruption, parent-child relationships, and behavior problems in childre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295-307.
- Phares, V., Fields, S., Kamboukos, D., & Lopez, E.(2005). Still looking for poppa. *American Psychologist*, 60, 735-736
- Ramchandani, P., Stein, A., Evans, J., & O'Connor, T. G.(2005). Paternal depression in the postnatal period and child development: A prospective population study. *Lancet*, 365, 2201-2205.
- Ramchandani, P., Stein, A., O'Connor, T. G., Heron, J.,

- Murray, L., & Evans, J.(2008). Depression in men in the postnatal period and later child psychopathology. *A population Cohort Study. Psychiatry, 47*, 390-398.
- Reid, G. H., Hong, R., & Wade, T.(2009). The relation between common sleep problems and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among 2-and 3-year-olds in the context of known risk factors for psychopathology. *Journal of Sleep Research, 18*(1), 49-59.
- Renk, K., Roddenberry, A., Oliveros, A., & Sieger, K.(2007). The relationship of maternal characteristics and perceptions of children to children's emotional and behavioral problems. *Child & Family Behavior Therapy, 29*, 37-57.
- Robila, M., & Krishnakumar, A.(2006). Economic pressure and children's psychological functioning. *Journal of Child & Family Studies, 15*(4), 433-441.
- Rutter, M.(1990). Commentary: Some focus and process considerations regarding the effects of parental depression on children. *Developmental Psychology, 26*, 60-67.
- Smith, M. A., & Jenkins, J. M.(1991). The effects of marital disharmony on prepubertal childre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19*(6), 625-644.
- Trapolini, T., McMahon, C. A., & Ungerer, J. A.(2007). The effect of maternal depression and marital adjustment on young children's internalizing and externalizing behaviour problems. *Child: Care, Health & Development, 33*(6), 794-803.
- Wilson, S., & Durbin, C. E.(2010). Effects of paternal depression on fathers' parenting behaviors: A meta-analytic review. *Clinical Psychology Review, 30*, 167-180.

접 수 일 : 2011년 2월 11일

심사시작일 : 2011년 3월 7일

게재확정일 : 2011년 4월 17일